

때론 따뜻한
눈 맞춤만으로 충분해요!

서로가 행복한 돌봄을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달라졌어요!

때론 따뜻한
눈 맞춤 만으로
충분해요!

서로가 행복한 돌봄을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도전을 응원해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스스로 걸어보려고 하거나 외부 활동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마다 친해지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어느 날 식사 중 사려가 걸려 기침을 하시는
어르신을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한 손을 들어
오케이 표시를 하자 어르신도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날 이후 어르신과는 동그렇게 오케이 사인으로 소통하곤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도 해요

어제까지 어른이 계셨던 자리가 예고 없이 비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견뎌야 하는 감정이지만 극복이 쉽지는 않아요. 현재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으로 조금씩 무뎌지고요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날 때
보람은 배가 됩니다**

평소 무뎠던 어른신이 안부를 묻거나 따뜻한 인사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마음에 전해져 보람을 배가시켜 줍니다.



고령화 시대,
함께 생각해 봐요

누구나 인간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바른 돌봄 문화 정착으로
돌봄 종사자와 이용하는 어르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고민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권혜성 사회복지사가 보내준 노화무